

21세기 과학 강국을 구축하는 데 우리 원자력계가 앞장 서야

박종구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존경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이원걸 회장님! 한국원자력학회 조남진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가 제23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자력기술상을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원자력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되고,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지도 3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 이어서 어느 때보다 본 연차대회를 개최하는 의미도 큰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지구촌은 몇 가지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나들고 있으며, 자원 보유국은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기후 변화에 미리 대비토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원자력이기 때문에 최근 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자력에너지가 깨끗하고 경제적이며,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크

게 기여하는 에너지원으로 인식되면서, 원자력발전소를 가진 나라는 더 가지려 하고 있고,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가지려 하며, 원자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나라들도 그 인식을 바꾸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자력 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은 물론, 안전 규제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 여러분!

지난 4월 8일 우주로 발사되어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한국 우주인에게 식사로 제공되는 우주식품 중 4종도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식품이라는 사실에 많은 국민



제23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 원자력계의 VIP

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원자력은 발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그 이용이 확대되면서, 원자력은 우리 생활과 늘 함께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들어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 기술 강국 건설로 선진 일류 국가 건설'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난 3월 이를 위한 9대 국정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원자력을 포함한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안전하고 핵확산성이 없는 파이로(Pyro) 핵연료 등 미래 에너지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연구 활력이 넘치도록 연구 환경을 재정비하고, 원자력이고부가 가치 신산업으로 육성되어 나가도록 원자력과 환경, 원자력과의학, 원자력과 산업을 융합시켜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이 되도록 원자력의 이용에 앞서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원자력 안전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원자력계가 새로운 21세기 과학 강국을 구축하는 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국내외 원

자력 전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제 협력과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원자력 현안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과 정보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23회 한국 원자력연차대회가 아무쪼록 세계 원자력계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유익하고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원자력계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